

 국토교통부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	2019. 12. 16(월) 총 3매(본문3)
담당 부서	공공주택 총괄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병훈, 사무관 김선영 • ☎ (044) 201-4517, 4539
	공연전통 예술과	담 당 자	• 과장 윤태욱, 사무관 김경래 • ☎ (044) 203-2736, 2731
보 도 일 시		2019년 12월 17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17.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문체부-국토부, 문화예술인 주거복지를 위해 두 손 맞잡다 17일 부천시 업무협약 체결...서계동 국립극단 등 복합개발 추진

□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양우)와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2월 17일 (화) 15시,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에서 문화예술 기반시설과 문화 예술인의 주거지원을 연계하는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다.

□ 이번 업무협약은 서계동 복합문화시설과 문화예술인 지원주택\*이 결합된 문화예술 복합단지를 조성하고, 향후에도 문화예술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양 부처가 상호 협력 하는 등 문화예술인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\* (개념) 작가, 배우 등 문화·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

-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서계동 복합문화시설을 공연장과 문화 예술인 지원주택으로 복합 개발하는 것에 대한 상호 협력, ② 부천 영상지구 등 문화예술기반시설과 문화예술인 지원주택 연계사업의 확산, ③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등이다.

□ 주요 사업지인 서울시 용산구 현 국립극단 부지는, 문체부가 서울 중심부에 공연장·창작공간·체험시설 등 상징적인 문화예술 복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다.

< 서계동 현 국립극단 위치도 >

○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도심 내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과 결합되어,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확충과 문화 예술인의 주거복지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.



○ 특히 서울시 서계동 현 국립극단 부지는 서울역과 도보 5분 내 거리에 있어, 문화예술시설과 문화예술인 지원주택 복합개발 시 서울 중심부의 핵심적인 문화예술 기반시설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한편, 문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은 14시부터 업무협약 장소 인근에서 진행된 부천 문화예술인 지원주택 기공식에도 참석한다.

○ 부천영상지구는 웹툰창작실·기업입주공간 등이 포함된 부천 웹툰 융합센터와 웹툰 작가·애니메이션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을 위한 문화예술인 지원주택이 복합 개발되는 곳으로, 이번 업무협약에도 담겨 있어 이 날 양 부처 장관 만남의 의미를 더한다.

□ 이번 양 부처의 협력을 통해 ① 문화예술인 등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② 복합문화시설, 웹툰융합센터 등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시설 공급이 확대되어 인근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문화콘텐츠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이 날 협약과 관련하여 문체부 장관은 “서울의 중심지이면서 교통의 핵심인 서울역 인근에 문화예술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서울 등 수도권 뿐 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우수한 공연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 면서, “특히, 예술인들을 위한 행복주택도 공급하여 주거와 창작공간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제고 및 부처 협업의 모범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국토부 장관은 “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예술인들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, 공연장·웹툰 창작실 등 문화예술시설과 가까운 곳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문화예술인의 주거지원이 보다 강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김선영사무관(☎ 044-201-4517),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김경래 사무관(☎ 044-203-273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